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Dec - Jan 2011



## **Contents**

- **UNEP FI 동향**
- **Asia Pacific 지속가능 금융**
- **UNEP FI Korea Group Activities**
- **New Publications**
- **Training Registrations**



## 2011 Global Roundtable, 2월 7일부터 등록가능



UNEP FI 는 10월 19일과 20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D.C. 에서 2011 Global Roundtable을 주최 할 예정이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 (Rio+20) 보다 7개월 앞서 개최될 이 Global Roundtable은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가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Global Roundtable 관련 정보나 참가신청 웹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수신 희망자는 [roundtable@unepfi.org](mailto:roundtable@unepfi.org) 으로 문의바람.

[상세내용 참조](#)

## UNEP FI & PRI 공동 웹 세미나 개최: “책임투자전략구현”



에너지 가격의 유동성은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좌우하는 반면, 기후변화의 물리적인 영향력은 미래 자산가치에 실질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건축물 유지비용의 증가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실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투자과정에서 ESG 이슈를 통합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재산 투자실적의 위험성을 완화시킨다.

UNEP FI 와 PRI 는 오는 2월 24일에 자산책임투자전략구현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는 그리니치표준시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발표자 명단:

Laurie Weir, Portfolio Manager - CalPERS Global Real Estate Investment  
 Tim Mockett, Managing Director Property - Climate Change Capital  
 Etienne Dupuy, Chief Executive Officer- BNP Paribas Real Estate Investment Services

### 사회자:

Andy Szyman, Co-chair - UNEP FI Property Working Group and Head of Sustainability, F&C REIT Asset Management

[상세내용 참조](#)



## UNEP FI, 중국 금융기관 참여 독려



UNEP FI 의장, Paul Clements-Hunt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금융 이해관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Paul은 2011 중국저탄소경제포럼(2011 China Low Carbon Economy Forum)의 개회식에서 저탄소와 자원효율적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국금융기관의 고유한 역할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또한 제 2회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에도 참석하였는데, 이는 보고가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새로운 어프로치 개발을 위해 수립된 것이다. 중국의 금융부 차관 Jun Wang는 이 회의에서 인사말과 함께 중국정부는 UNEP FI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금융: '금융 및 생물 다양성'

# Environmental Finance

UNEP FI는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흐름에 대한 기사, '다양성에 대한 금융', 을 발표했는데, 이는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보호에 대한 금융기관들이 취하는 자세에 대하여 화두를 던지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금융계 기관들의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환경·사회적 현상들을 점차 재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는 금융기관들이 다방면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가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또한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가 금융에 어떠한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한다. 기사원문은 *Environment Finance* 매거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매거진 링크](#)

##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



UNEP FI는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 16 협상회의에 참석하여,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ldlife Fund)과 함께 효과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연구기관은 또한 칸쿤에서 첫 번째 세계기후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참여하였는데, 이는 기업, 정부, 금융기관들이 함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총회의 가장 의미있는 결과물은 칸쿤 협정(The Cancun Agreement)이었는데 이는 올해 COP 17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이 회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얼마나 절실한지,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칸쿤 협정은 보다 체계적인 틀을 설립하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Durban)에서 진행되는 COP17에서 청정개발기구(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분야에도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 내용 참조](#)



## 한국거래소, 국내 최초의 녹색 ETF 신규상장

**KRX 한국거래소** 국내 최초 녹색 ETF 2종이 1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24일 국내 최초 녹색 ETF인 '미래에셋맵스 타이거 그린'과 'KTB 그레이트 그린'이 1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고 밝혔다. 두 ETF 모두 녹색산업지수(KRX Green)를 기초지수로 한다. 녹색산업 지수란 정부의 녹색인증을 취득한 기업 등 녹색 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산출하고 있는 지수이며 LG화학, OCI 등 20가지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래소 측은 녹색 ETF가 신성장동력인 녹색인증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만큼 녹색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세내용 참조](#)

## 경주, '2010 월드그린에너지 포럼' 개최



WORLD GREEN ENERGY FORUM 2010

정부가 2019년까지 전북 부안군과 전남 영광군 해상에 2,500MW급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사업 규모는 9조 2,590억 원으로 정부가 해상구조물 등의 기술개발에 29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발전기 및 지지구조물 등의 개발/설치 예산은 민간에서 투자한다고 밝혔다. 강남훈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관은 “한국의 해상풍력은 현재 개발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연관산업들과 접목할 경우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상세내용 참조](#)

## LG CNS, 말레이시아 그린시티 개발



LG CNS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그린시티의 IT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LG CNS는 MPCorp과 조호바루 지역 신도시에 조성 예정인 레이크힐 리조트 및 아시아태평양무역엑스포를 스마트그린시티로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로 기존 국내 U-시티 시장에서 일반화된 방법 방재, 시설 물 관리, 교통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대기 및 수질 등 환경 관리, 클라우드 컴퓨팅,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그린 서비스 영역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상세내용 참조](#)



## 한국정부, 친환경 녹색성장 중요성 재차 강조



현재 녹색성장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가늠할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여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결과, 한국 기후정책은 2010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세계 57개국 중 2위를 기록했고 특히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은 유엔환경계획에게 모범적인 친환경 녹색사업으로서 높게 평가받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한국 기후정책 관련 연설에서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태도로 기후변화 문제해결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세계적 석학인 스티븐 교수는 한국이 지금처럼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내용 참조](#)

## UNEP FI KG Activities

### H 현대해상



#### 현대해상, 'Hicar Eco 자동차보험' 출시

- 금융기관 최초로 '201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
- 지난해에도 보고서와 지속가능성지수상을 동시에 수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글로벌 책임투자지수인 'Dow Jones Sustainable Index 한국 지수'에도 편입된 바 있음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저탄소 녹색통장' 판매

- 판매수입금의 50%를 '맑은 서울 만들기' 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저탄소 녹색통장' 판매
-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나 '탄소마일리지'제도 참여 고객에게는 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인터넷 뱅킹 수수료 등 100% 면제



#### 국민은행, 국내 은행권 지속가능성 1위

-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ERISS) '2010 은행산업 지속가능성지수' 발표: 12개의 일반은행 중 국민은행의 지속가능성지수 641.12으로 1위



## 중국, 전세계 청정에너지 시장 주도



중국이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며 전 세계 청정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분기 풍력발전산업에 약 100억 달러(한화 약11조원)를 투자 했으며, 이는 전세계 풍력산업투자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투자는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계획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을 국가 전략의 중요 요소로 삼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풍력발전산업뿐만이 아니라 태양열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상세내용 참조](#)

## ADB, 청정에너지 부문에 지원 예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청정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2개의 신생민간자본펀드에 약4천만 달러(한화 약 45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B는 Clean Resource Asia Fund와 Renewable Energy Asia Fund에 각각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중국·인도지역의 청정에너지 기업 및 인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ADB의 지원으로 향후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재정적 격차를 채워줌으로써 지역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상세내용 참조](#)

## 중국, 태양광 생산·내수 확대



중국 태양광 시장의 상승세가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 생산능력이 올해 10GW 수준에서 내년에는 13GW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섀넥, 잉리솔라, 트리나솔라, CSI 등 주요업체들의 생산량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중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는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으며 중국의 향후 2011년~2015년 신성장산업 육성 계획에도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설비업체들을 대상으로 '골든선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선정된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설비 납품에도 우선권을 주며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 신한은행, 다양한 녹색성장 관련 예금, 펀드, 대출상품 개발

- '신한 희망애 (愛) 적금' 개발: 에너지 절약실천에 서명하는 고객에게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상품
- '신한 BNPP 봉쥬르 클린월드 주식투자신탁': 물·에너지 폐기물처리 관련 우량기업에 투자
- '탐스 아름다운 주식 1호 Class A':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
- '신한 솔라파워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시설자금을 빌려주는 상품



### 한국수출입은행, 환경기술 수출 "녹색한류 넓히자"

- 최근 거센 녹색한류바람과 함께 국제동향에 빠르게 발맞추기 위해 국내외 원조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넓혀 국내 선진기술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 적극 발굴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 사업 확대하고 다자간 개발은행(MDBs) 등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안정적인 사업운영 뒷받침



### 대구은행, 우수 시중은행들 제치고 지속가능성지수 2위

- 전국영업망을 보유한 우수 시중은행들을 제치고 2위(577.15점)를 기록
- 경제부문 4위, 환경부문 3위, 명성지수 3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둠



### 하나은행, '2010 아주경제 금융대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 하나은행이 제시한 '가정' 과 '환경' 키워드가 좋은 평가를 받음
- '녹색성장 선도하는 착한 은행' 이라고 호평 받음

➢ '순천만적금' 개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후원하는 지역특화상품

➢ 순천시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 람사르 연안 습지 순천만의 생태계 보전 후원



## 세계 금융기관, “현 기후변화 정보, 불충분”



‘금융기관들은 불규칙적인 기후변화 패턴의 물리적 영향력에 관한 보다 발전된 정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리스크 관리 향상을 위해 기후변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기업들이 기후변화 저감 수단들을 실행하는 데에 세계 금융기관들의 영향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의 보고는 UNEP FI 의 기후변화워킹그룹(CCWG; Climate Change Working Group)과 지속가능경영연구소(SBI; Sustainable Business Institute)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4대륙의 60개 기관들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뮌헨 Corporate Climate 센터장이자 CCWG의 멤버인 Ernst Rauch는 “선도적인 보험그룹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지역의 기상재해 손해패턴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리스크가 사보험회사로 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위험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 정보 및 사업 영위 목적간 적합성이 앞으로 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구자료 참조](#)

Published: 2011 | By: UNEP FI, SBI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advancing\\_adaptation.pdf](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advancing_adaptation.pdf)

# Register Now

## 금융기관의 기업 환경 효율성에 대한 온라인 강의

금융기관의 기업 환경 효율성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 UNEP FI와 Ecobanking Project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본 강의는 금융기관 내 운영 및 조달에 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중상위급 매니저들로부터 자원효율적인 사업운영 교육을 통해 생태발자국을 감소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 강의는 참여자들에게 금융기관들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의 (물, 에너지, 수송, 건축물과 공급망) 주요 부문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주제에 대한 소개 및 내부 적용과 최종 평가라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날짜	02.28 ~ 03.18	교육기간	3주
		강사	Edgar Rojas (Colombia)
언어	스페인어	시간할당	평일 매일 평균 2시간 (변경 가능)

- ◆ 등록방법: <http://www.unepfi.org/onlinetraining/ecoef/> 신청서 작성
- ◆ 자세한 내용: [http://www.unepfi.org/training/ecoef\\_training/index.html](http://www.unepfi.org/training/ecoef_training/index.html)
- ◆ 등록문의: [training@ecofrontier.com](mailto:training@ecofrontier.com) 또는 [training@unepfi.org](mailto:training@unepfi.org)

본 온라인 강의는 UNEP FI 라틴 아메리카 Task Force와 Ecobanking Project의 합작 결과로, InWent(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와 INCAE Business School의 지원을 받았다.



## 월 스트리트 녹색 정상회담



UNEP FI 는 오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월 스트리트 녹색 정상회담과 협약을 성사시켰다. 2002년 Peter Fusaro 에 의해 처음 개최된 월 스트리트 녹색 정상회담은 업계에서 역사가 깊은 가장 포괄적인 환경 시장의 행사이다. 정상회담의 의제는 오늘날의 신재생 에너지 금융과 무역, 탄소무역, 클린테크, 저탄소 경제의 이익 등의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등록 방법: [www.wsqts.com](http://www.wsqts.com)

## 기후변화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온라인 강의



오는 3월, UNEP FI는 온라인 강의,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기와 기회" ("Climate Change: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nance Sector")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수업은 금융기관들에게 기후변화와 탄소금융(교토 의정서의 유연성메커니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효과적인 내부정책/제품의 개발을 지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는 참가자에게 기후변

화의 완화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모든 UNEP FI 멤버는 등록비용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강의는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강의는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본인의 중요한 역할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강의 내용의 기업 활동 계획 및 전략 수립에의 접목
2. 새로운 계획과 전략의 리스크/기회와 시장의 탐색
3. 강의 자료의 내부 적용 및 참조 가이드로 활용

참가자의 정책 도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본 강의는 다양한 사례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 자료의 링크를 통해 적절하고 중요한 온라인 자료와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다. 또한 토론 포럼 내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고유의 국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날짜	03.07 ~ 03.28	교육기간	3주
언어	영어	시간할당	최소 30시간 소요 예정
		참여인원	최대 50명

- ◆ 등록방법: <http://www.ghginstitute.com/ProductDetails.asp?ProductCode=UNEPFI1>
- ◆ 자세한 프로그램: [http://www.unepfi.org/training/climate\\_change/index.html](http://www.unepfi.org/training/climate_change/index.html)
- ◆ 등록문의: [unepfi@ecofrontier.com](mailto:unepfi@ecofrontier.com) 또는 [cc-training@unepfi.org](mailto:cc-training@unepfi.org)



##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분석 코스(ESRA)



1995년부터 52개국의 9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분석 이러닝 코스의 교육일정이 발표되었다. 강사들이 참여자와 매일 온라인으로 만나는 ESRA 프로그램은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대출이나 투자심사 시 환경 및 사회적 변수를 고려하는 방법을 다루며 아래의 다섯 모듈로 이루어진다.

- 1) 지속가능금융 소개
- 2)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식별
- 3) 리스크 분류
- 4) 리스크 평가
- 5) 리스크 관리

참가자는 환경·사회적 정책 및 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연습하고, 사례연구분석 뿐 아니라, 자사고객의 실제 이슈를 기반으로 한 연습문제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담당강사와 보조강사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언어	날짜	Tutor
스페인어	02.14 ~ 03.04	Lawrence Pratt (Costa Rica) & Edgar Rojas (Colombia)
영어	02.28 ~ 03.18	Lawrence Pratt (Costa Rica) & Christina Wood (South Africa)
불어	03.28 ~ 04.15	To be confirmed
스페인어	05.09 ~ 05.27	Lawrence Pratt (Costa Rica) & Edgar Rojas (Colombia)
영어	05.30 ~ 06.17	Lawrence Pratt (Costa Rica) & M. Makwarimba (Mozambique)
스페인어	08.01 ~ 08.19	Lawrence Pratt (Costa Rica) & Edgar Rojas (Colombia)
영어	08.08 ~ 08.26	Lawrence Pratt (Costa Rica) & Jacylyn Shi (China)
불어	10.10 ~ 10.28	To be confirmed
스페인어	10.31 ~ 11.18	Lawrence Pratt (Costa Rica) & Edgar Rojas (Colombia)
영어	11.07 ~ 11.25	Lawrence Pratt (Costa Rica) & Mariángeles Camargo (US)

- ◆ 등록방법: <http://www.unepfi.org/onlinelearning/index.php> 신청서 작성
- ◆ 자세한 내용: [http://www.unepfi.org/training/risk\\_training/index.html](http://www.unepfi.org/training/risk_training/index.html)
- ◆ 등록문의: [training@unepfi.org](mailto:training@unepfi.org)

본 온라인 강의는 UNEP FI,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InWent)와 INCAE Business School의 합작 결과이며 Ecobanking Project의 지원을 받았다. 처음에 스페인어로 2006년에 Bank of America의 지원으로 UNEP FI Latin American Regional Task Force에 의해 출시되었으며 2007년에는 FMO의 도움으로 영문판이 출시되었다.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ECO-FRONTI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25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http://www.ecofrontier.com)

